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18** 2018/06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aci 산업용 특수 페인트 & 신발용 접착제 전문기업
PT. Asia Chemical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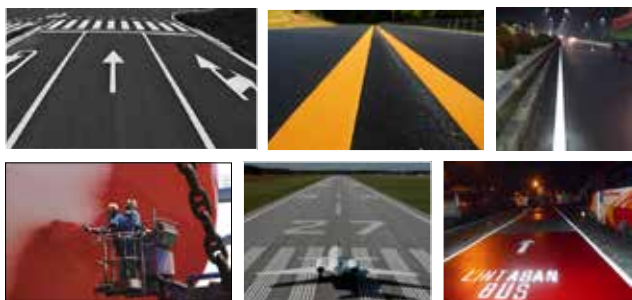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칼라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물에 색을 입히는 것은
그 물체에 생명과 웃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 **Asia Chemical Industry**입니다.



문의 및 상담

한국어 / 김택용 과장

hp : 0811 978 1066

e-mail : kimty81@aci-yuwon-biz.com

인니어 / Pak Yustiawan

hp : 0853 1082 9230 / 0813 8121 7005

e-mail : yustiawan@aci-yuwon-biz.com

PT. Asia Chemical Industry

Marketing Office:

Karawaci Office Park, Blok H, No. 25 Tangerang, Banten
Phone: 021-55790456 (Hunting) Fax : 021-55790454
<http://aci-yuwon-biz.com>

Factory:

Jl. Raya Modern Industri, No.23 Kawasan Industri
Modern, Cikande, Serang, Banten
Phone: 0254-400711 (Hunting) Fax: 0254-401105

Branch Office:

Jl. Raya Ruko Gempol Interchange No 11A
Gempol-Pasuruan, Jawa Timur
Phone / Fax : 0343-655320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 국토부 건설 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사진=해외건설협회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 제공)

5월 14일(월), 국토부 김일평 건설 정책국장 일행을 초청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와의 수주 지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의 아시아 인프라 협력 센터가 주관

한 이 회의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향후 인니 건설시장 진출 확대 방안이 협의되었다. 동 모임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인니 진출에 공헌한 롯데건설 이강우 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현승환 소장, 수

자원 공사 박세원 차장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동 회의에는 국토부 김일평 국장을 비롯하여, 배석주 국토관, 해외 건설협회 이준 센터장 이외 인니 주재 건설사 대표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김 국장 일행의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면담시, 장관은 오는 9월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 회의 참석을 수락하였고, 10개 아세안 대표부와 협의시, 각국 대표부는 동 회의 참석 및 지원을 긍정적으로 약속하였다.

인프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재생에너지, 물사업, 스마트시티 및 지능교통 시스템 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 사업분야, 역세권 개발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보다 활발한 수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까와산 인더스트리 자바베카 “올해 부동산 사업 매출 두 배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까와산 인더스트리 자바베카(PT Kawasan Industri Jababeka, 이하 KIJA)는 올해 부동산 사업 목표 매출액을 전년 대비 2배인 2조 2,5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인프라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언론 콘판 16일자 보

도에 따르면 KIJA의 부디안포 리만 대표 이사는 “부동산 사업의 지역별 목표 매출은 서부 자바 짜카랑이 1조 5,000억 루피아, 중부 자바의 끈달 공단이 5,000억 루피아, 서부 자바 반뜰의 판중 레송이 2,500억 루피아이다”라고 말했다.

부디안포 대표 이사는 이어 “자카르타 수도권의 경전철(LRT)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편이 정비되고 있어 짜감백과 판중 레송의 부동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KIJA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조 9,950억 루피아였다. 이 가운데 인프라 사업이 59%, 부동산 사업이 37%였다.

계가 있다.

국회 제9 상임위원회 데데 유습 위원장은 과거에는 뽕뽕으로 충분했지만, 2016년 이후 많은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좀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담반에는 외국인력 관련 정부 부처 24개에서 파견된 인력 45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6개월 간 활동한 뒤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인력부의 수경 뿌리야프 대변인은 “예를 들면 광산업에 취업한 외국인력에 대한 조사는 에너지광물부의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물류산업, 농업, 무역,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력이 증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 수는 2013년에 70,120명에서 2017년에 85,974명으로 증가했다.

인력이주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위반사례는 2016년에 848건에서 2017년에 775건으로 감소했다.

위반사례가 많은 곳은 광업, 무역업, 해양수산업, 서비스업 등이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감독 전담반 발족

인도네시아 정부가 17일 외국인력 감독전담반을 발족하고 외국인력과 고용주의 위반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전담반 구성은 국회 제9 상임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하맛 하늬 다끼리 인력이주 장관은 17일 자카르타 외국인력 감독전담반 출범식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늬 장관은 이번 전담반의 설립 근거는 인력부 장관령 No. 73/2018라며, 외국인력 위반사



▲ 인도네시아 인력 당국이 불법 또는 단순노동 외국인력 신고를 권고하는 공지문. [사진출처: 엘신따]

례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담반은 허가문제, 고용상태, 노동허가와 실제 업무와의 차이 등 여부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현재 이민국 소속의 외국인력감시팀(Timpora)이 있지만 대략 85,974명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취업 외국인력을 감시하기에는 한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경기부진 · 신흥국 위기...숨죽인 중앙은행들 돈줄 쥐고 관망세

미국 추가인상 전망에도 여타 주요국은 금리 동결 행진 ‘경기 부양 + 통화절하 방어’ 신흥국 선행 복잡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확실시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빼면 세계 경기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신흥국 통화위기가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20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기준금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세계 주요 20개 국가(G20) 중에서 올해 2분기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한 곳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 통화가 불안한 2개국뿐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등 상당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곳은 없다.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라는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는 미국과 달리, 나머지 선진국들은 긴축에 박차를 가할 만큼 각종 경제 지표에서 명백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0.5%로 인상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4차례 회의에 걸쳐 기준금리(0.5%)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관측이 우세했는데도 영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인상 관측이 급격하게 힘을 잃었고 실제로도 동결로 결론 났다.

일본은행도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춘 이후 지난달 27일 금융정책회의에 이르기까지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일본 정부 목표인 2%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고, 1분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8분기 연속 성장세가 멈췄다.

캐나다은행은 올해 1월까지 6개월 새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추가로 올해

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과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3~4월 2차례에 걸쳐 동결을 결정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26일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ECB 기준금리는 2016년 3월 0.05%포인트 내려 제로를 찍은 이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 변수들을 지켜보며 더욱 촉각을 세우는 곳은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들

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앞서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상 행진을 보인 멕시코는 폐쇄화 약세로 지난 17일까지 2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신흥국은 대내외 여건에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이 혼재해 더욱 미묘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2016년 10월을 시작으로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쓰다가 지난 16일에는 달러 강세를 견디지 못하고 동결했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최근 기준금리를 올려도 추가 절하를 막지 못해 불안감이 커졌다.

고용 부진이나 통화 약세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관측되는 국가도 여러 곳이다.

호주는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내달 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난 3월 금리를 인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랜드화 가치 하락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

률이 겹쳐 오는 24일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신흥국 통화위기로 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도 ‘나 홀로’ 경기 회복세를 자신하는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중앙은행들의 선행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8일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종종 과장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시장 자금 이탈론을 경계했으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최근 잇따라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19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미 기준금리 연말 전망치(중간값)는 2.25~2.50%로 연내 3차례의 추가인상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달러와 국제 금리 급등에 주요 신흥국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지 않았다가 투자자들이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급락, 물가 급등에 집중하면서 신흥시장으로부터 돈을 돌릴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자본유출 압박에 4년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촉발된 자본 유출로 몸살을 앓던 인도네시아가 4년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7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 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높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목적으로 지난 2년여간 기

준금리를 7.50%에서 4.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었다.

B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루피아화 약세를 막을 수 없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루피아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초부터 급격한 약세를 보여왔다.

1월 말 달러당 1만3천300 루

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5월 17일 달러당 1만4천74 루피아로 774루피아(5.8%) 이상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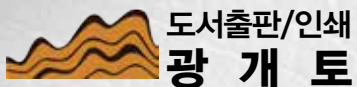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에 이르러 자본 유출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뱅크센트랄아시아(BCA)의 데이비드 수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유출이 계속 이



▲2018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어질 경우(BI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함께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관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해수부 장관,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 사업 韓 참여 요청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 서명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우)과 루훗 빈사르 뽀자이판 인니 해양조정부 장관(좌)[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오전 11시(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뽀자이판 해양조정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한-인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

에 서명했다.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인도네시아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설립을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해양 에너지·항만 개발과 해양플랜트 해체 등 협력 사업이 이뤄지도록 인도네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풍부

한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과학 기술·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해양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시대를 열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수지 뿌지아스뚜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방안과 불법어업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쁘르따미나’의 부디 빵아리부안 이사를 만나 해양플랜트 해체 사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해체 타당성 조사’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4.3조’ 인니 정유설비 수주전 점화 GS건설 진영 구축



컨소시엄 구성...현지 국영건설사, 이탈리아 업체 참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쁘르따미나’ 5월 입찰 예정

GS건설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정유설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진영 구축을 끝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뿌르따미나(PT Pertamina)가 이달 안에 ‘발릭빠뽀 정유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 발릭빠뽀에 있는 대규모 정유시설을 증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은 이를 위해 현지 국영건설사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업체 ‘사이펴(Saipem)’ 등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특히 GS건설과 아디 까르야는 이미 인도네시아 질라잠 석유화학 플랜트를 함께 수주하며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외에도 컨소시엄 3곳이 수주전 참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는 GS건설을 포함해 삼성엔지니어링과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LG ‘기회의 땅’ 인니 수처리 설비 무상 지원 라부안바조 지역에 수처리 설비 건설 인니, LG전자·LG상사 등 주요 계열사의 핵심 기지



▲LG상사 인도네시아 팜 오일 공장
LG그룹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청정 수처리 설

비 건설을 지원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주에 위치한 라부안바조(Labuan Bajo) 지역에 무상으로 수처리 설비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담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식수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급

격한 산업 발전으로 강물은 오염됐지만 이를 정제할 시설이 부족해사다. LG는 이같은 현지 환경을 고려해 수처리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LG전자와 LG이노텍, LG상사 등 LG 계열사들이 사업장을 보유한 동남아 핵심 기지다. LG전자는 2008년 수요가 전무한 양분형 냉장고 시장을 개척

하며 인도네시아 내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았다. LG전자의 인도네시아 가전 시장 점유율(유로모니터)은 2016년 기준 22.2%로 2위다. LG이노텍도 2001년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 TV와 VCR용 튜너 및 헤드 등 AV기기용 아날로그 부품 생산에 나섰다. LG상사는 2008년 석탄 광산 개발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발을 디뎠다. 이후 팜 농장과 감 석탄 광산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북수마트라 민자 수력 발전소 개발 사업에도 진출했다.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印尼 380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 장(場) 열린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에 3,600억 달러(약 387조원)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방문한 국가로, 당시 양국 정상은 경전철, 신도시, 5G, 에너지 자립섬 등 신산업

협력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제 개발 정책인 '조꼬노믹스'를 내걸고 인프라 사업에 임기 5년 동안 약 3,600억 달러(약 387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조꼬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인 최근까지 7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꼬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9년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망, 항만, 공항, 발전소 등에 4,800조 루피아(약 385조원)를 투자해 15개의 공항과 172개의 항만 등을 신설하고 있다.

무역협회 측은 인도네시아가 많은 인구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족한 SOC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경우 현지 경제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포스코, 현대건설, 롯데건설, 노틸러스 효성 등이 현지 SOC 영역 진출에 성공한 만큼 국내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틸러스 효성은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BCA에 다양한 금

용자동화기기를 공급 중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 8월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 철도 시스템 구축 최종 계약과 2단계 사업 수주를 했다. 한화건설은 공공주택 187만호 건설과 관련해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를 했다. 롯데건설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저레본II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하상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고, 포스코는 현지에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피라카따우 포스코)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전철 프로젝트 한국-중국 2파전

잘란 젠더럴 수디르만 1단계 공사 총 485km 공사비 약 7조원 규모...내달말 입찰 제안서

인도네시아 라부 뿌라부 에너지(PT Ratu Prabu Energi)사의 경전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기업 6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익명의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라부 뿌라부 경전철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485km에 걸친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로, 1단계는 젠더럴 수디르만 도로(Jalan Jenderal Sudirman)에서 건설된다. 2, 3단계는 다안 모곳(Daan Mogot) 도로와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까지 건설을 진행한다. 이번에 입찰 중인 구간은 1단계로, 총 115km 거리에 경전철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내 업체 1곳을 비롯해 중국 기업 6곳 등 총 7개 회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다음달 말까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업체 선정 과정은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착공은 내년 말쯤 시작된다. 개발 1단계의 완공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3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1단계에서는 약 7조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의 국가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GS건설, 하반기 동남아 필두 해외수주 모멘텀 본격화” - BNK



BNK투자증권은 GS건설(46,650원▲ 950 2.08%)에 대해 17일 하반기부터는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외수주 모멘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며 매수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만5000원에서 6만원으

로 상향조정했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회사는 하반기에는 태국 Thai Oil 클린퓨얼 프로젝트(50억달러), 인도네시아 Balikpapan 정유공장 증설(40억달러),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콤플렉스

등 메가 프로젝트 입찰에 연이여 참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베트남 개발 사업도 8년 만에 재개된다.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호치민시 나베신도시 1단계 사업이 4분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898억원으로 전년 동기(590억원)와 시장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라면서 “해외부문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최초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
PT. KYUNG HEUNG INDONESIA
www.trustedcompany.com

SANDWICH PANEL™
ROOF AND WALL



MERIT :
High Efficiency insulation (no need A/C for housing)
Protection of dampness, insulating effect, and water leakage.
Long lifetime (approx 20 years)
Simple erection and saving cost steel structure (CNP distance 1500mm)
Clean factory

Type of sandwich panel™



Roof : V-250 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Tile Roof : Genteng-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Length for the above material:
Customer request up to 12Mts
More Than 12Mts to be discussed



Wall : KHW-3 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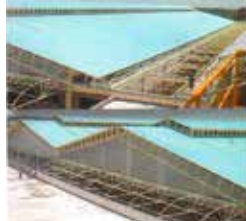
Arch Type Roof : ATR-250

Radius depend upon customers requirement.

Product & Fabrication: Doors, Swing Door, Hanger Door, Louver Etc

PERFORMANCE

Korean Customer (2001)



Local Customer (2003)



Foreign Customer (2008)



Head Office Wisma Slipi 4th floor suite #F403 Jl. S Parman Kav.12 Jakarta Barat
Telp: (021) 5307244 Fax: (021) 5307256
CP: Mr. Haryanto Choi Hp: +62 811 956 8710
E-mail : Haryantochoi48@gmail.com

Factory Jl. Raya Serang KM.12 kampung Gebang Cikupa Tangerang
Telp: (021) 59402532 Fax: (021) 59402496
CP: Mrs. Lusti HP: +62815-10598501
E-mail: sndpnl@yahoo.com

롯데건설, 인도네시아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출 주주협약 및 주식인수 계약 체결 예정



▲ 롯데건설과 인도네시아 VIP그룹의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촬영/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2일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VIP그룹과 현지 사우마타 프리미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서부 신도시 알람수트

라 상업 지역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를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 체결은 롯데건설과 VIP그룹 양사가 주주협약 및 주식인수 계약 체결을 앞두고 VIP그룹 회장단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됐다.

사우마타 프리미어는 공동주택 502세대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9층 규모로 2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향후 분양매출액은 1억달러(약 1070억원)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 3월 착공에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VIP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디벨로퍼로서 고급아파트,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VIP그룹이 롯데건설의 복합개발 사업 노하우와 테넌트 유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상호 전략적인 업무 협력이 이뤄졌다.

오마이건설뉴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 1만명 운집한 라마단 첫날 풍경



라마단 첫날인 지난 17일, 동남아 최대 규모인 중앙 자카르타의 이스티클랄 사원(Is-tiqlal Mosque)에서는 약 1만 명이 모여 함께 부카 뿌아사(금식 후 오후에 음식을 먹는 일)와 예배 의식을 가졌다. 일몰 3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 사원의 실내외에는 말

린 대추야자와 물, 닭고기 등을 실은 차량을 통해 부카 뿌아사를 위한 약 3천5백식이 배포됐다.

중부 자바주 스마랑의 고등학교 교사 수와(53)씨는 다른 4명의 교사와 함께 처음 이스티클랄 사원을 방문했다며 “앞으로 한 달간 모스크 근처에 머물고 매일 이스티클랄에 올 것”이라며 즐겁게 말했다.

이윽고 오후 5시 47분 일몰을 알리는 아잔(Adzan·이슬람 기도시간을 알리는 외침)이 흐르자, 배부른 식사와 지참한 요리를 맛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스티클랄 사원에서는 부카 뿌아사를 위해 평일에는 3천5백식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걸쳐 약 4천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날 따라위(tarawih)라 불리는 저녁기도회에는 약 1만 5천명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티클랄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수라바야 지역에서 발생한 잇따른 테러의 영향으로 사복 경찰이 다수 배치됐으며, 평소보다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자바주정부, 27개시군 연결 광섬유 3000km 부설 계획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정부는 27개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3,000킬로미터 길이의 광섬유 망을 향후 5년간 부설한다고 밝혔다.

IT기술을 활용해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는 국가 스마트시티 계획의 일환이다. 초기 예산으로 5,000억 루피아가 추산됐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섬

유 망의 부설 공사는 국가 운영 산업회사 자사 사라나(PT Jasa Sarana) 자회사인 IT 통신 멀티미디어 관련 서비스 회사 자바르 텔레마띠까(PT Jabar Telekomatika)가 맡아, 다음 달에 시작한다. 자바르 텔레마띠까의 알리야스 이사는 “올해는 우선 400킬로미터 부설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통신국의 헤닌 국장은 “반동시와 데복시 등은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에 동의했다. 다른 도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바르 텔레마띠까는 특히 정보 통신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빈판섬 리조트 개발 14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말레이시아 리조트 개발업체 더 하브 그룹의 인도네시아 법인 더 하브 빈판(PT The Haven Bintan)은 7월 리아우제도주 빈판섬의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과 현지 건설업체와 함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6헥타르 규모에서 개발사업을 진행, 총 14억 싱가포르 달러가 투입된다.

현지 언론 폼빠스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윈난 컨스트

럭션 인베스트먼트 홀딩 그룹(Yunnan Construction Investment Holding Group)과 인도네시아 토탈 방운 뿌르사다(PT Total Bangun Persada)이 주요 건설 사업자이다.

향후 콘도 6동과 5성 호텔, 3,0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등을 총 4기로 나누어 건설한다. 1기 개발에 2억 8,8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2년 반안에 클럽 하우스 등을 건설한다.

더 하브 빈판의 피터 최고경영자(CEO)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수요가 예상된다”라며 “콘도 공식 예약은 올해 6~7월에 시작한다”라고 언급했다.

Pemium Safety
ROKY

스타일을

안전에

을 더한다

PT. NEW SUN

Jl. Pemda No 56 Kp. Ciapus Rt 08, Suka Mulia Cikupa, Tangerang
Telp : +6221 - 2915 9068 ~ 69 | HP : 0811 816 2232
Email : newsun.indonesia@yahoo.co.id

Jakarta PT. LAON 0821 1289 3377
Kelapa Gading PT. Inkor Marine Service 021 2957 4546
Cikarang PT. INDOKOR 0811 883 824
Karawang PT. HORENSO 0812 105 5611

ROKY 안전화
대리점/딜러 모집중

트럼프 인니 사업파트너, 중국 국영기업과 협력



인도네시아 MNC, 중국 MCC와 테마파크 건설 계약 체결
복합단지 '리도 시티' 일부...트럼프 호텔·골프장 옆 테마파크 조성

미국과 중국이 긴장 속에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가 중국 국영기업과 손을 잡았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MNC그룹은 이날 '트럼프' 이름을 내건 6성급 호텔과 골프장 옆에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중국 국영 건설회사인 중국야금과화학공업(MCC)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마파크와 트럼프 브랜드 호텔, 18홀 골프장은 모두 하리타노수딕조 MNC그룹 회장이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 라이프스타일 리조트 및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건설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복합단지 '리도 시티(Lido City)'의 일부로 함께 포함돼 있다.

MNC와 MCC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통갈 무다 시거 MNC 그룹 대변인은 "테마파크와 트럼프 부동산은 리도 시티 개발에 포함된 별개의 프로젝트"라면서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중국 기업과의 협약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MNC그룹은 다른 계약자를 통해 리도 내 트럼프 리조트를 건설하고, 발리에 두 번째 트럼프 리조트와 골프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계약에 대해 “

타이밍이 어색하다”고 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더 많은 것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국영기업인 MCC와

인도네시아 개발업자 간의 계약은 인프라 및 기타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금과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찬 계획인 '일대일로'의 산하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NYT는 이번 계약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비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해 상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영 건설 아디까르야, 한국·이탈리아 기업과 함께 정유소 건설에 응찰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아디까르야(PT Adhi Karya)는 한국, 이탈리아 기업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국영 석유 뿌르따미나가 동부 깔리만탄주 발릭파판에서 실시하는 정유개발 기본계획(RDMP) 입찰에 참가, 1차 입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끈판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디 까르야의 뽀중 운영 이사는 “이 합작회사에는 한국 종합 건설 대기업 GS건설과 이탈리아 시추회사 사이펴(Saipem)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총 공사비로 4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



다”라고 설명했다. 아디 까르야는 GS건설과 공동으로 자바섬의 짜랍짜 중질유 분해설비(RFCC)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다. 아디 까르야는 올해 신규 수주

東 자카르타에 완공된 인니 최초의 '시니어 아파트'



인도네시아에 국내 최초의 시니어 아파트가 완공됐다.

최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동부 자카르타의 짜부부르 지역에 완공된 '고령자를 위한' 시설

로, 지난달 24일에는 준공식이 열렸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친족의 신청만으로는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의 입주의사를 확인한다.

식비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월 임대료는 350만 루피아로, 입주 전 친족의 동의서와 임대료 지불 능력 등의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3층에 걸쳐 9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가 지난 2016년부터 건설을 추진해 올해 2월 완공했다. 총 공사비는 161억 9천만 루피아.

각 방의 넓이는 24m²로, 킹 사이즈 침대, 소파, 식탁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다.

노인을 배려한 난간과 조명, 통로 등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 상주 의사에 의한 순찰 검진도 제공된다.

인니, 세계 최대 지열발전소 '사룰라' 3호기 상업운전 개시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사룰라 지열발전소의 3호기(출력 10만 9,000 kW)가 4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1,2호기의 발전량을 합치면 사룰라의 총 발전량은 33만kW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큐슈 전력(Kyushu Electric Power), 이토추(Itochu Corporation),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 인도네시아 지역 기업 메드코 파워 인도네시아(PT Medco Power of Indonesia), 미국 오마트 테크놀로지(Omat Technologies)가 이 발전소를 공동 출자하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룰라 지열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제4의 도시인 수마트라 북쪽 지역의 메단에서 남쪽으로 약 35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다. 1호기는 2017년 3월, 2호기는 같은 해 10월에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 국영 전력 PLN과 30년간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큐슈 전력은 2030년까지 해외 발전 사업 지분의 총 출력을 500만k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호주 부동산 크라운그룹, 안졸에서 복합 개발 사업 착수... 투자액 7조 루피아 예상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주택 개발 회사 크라운 그룹(Crown Group)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안졸 지역 복합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총액은 7조 루피아로 추산됐다.

이에 자카르타특별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뽀방우난 자야 안졸(PT Pembangunan Jaya Ancol, 이하 PJA)과 제휴협정을 맺었다.

현지 언론 끈판 8일자 보도에 따르면 크라운 그룹이 51%, PJA가 49%를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 4월 27일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약 4.7헥타르에 거주지,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설치된다.



크라운 그룹의 이반 최고 경영책임자(CEO)는 “총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 11월에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의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밀레니엄 시대(1980~1990년대 출생) 중산층이 주요 판매 대상이다.”

이반 최고 경영책임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 급성장으로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WELCOME-VISA
싱가폴 당일 비자 전문

대표 **김정미**(Jay Kim)
H.P : +65 9337 5852
카톡: **welcomevisa**
E-mail: visa7568@gmail.com

<비즈니스 고사성어>

**귀상극즉반천, 貴上極則反賤
천하극즉반귀 賤下極則反貴
비싼 것이 극에 이르면 싸지고,
싼 것이 극에 이르면 비싸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춘추시대 경제 사상가 계연(計偃)은 상품경제의 발전을 적극 주장하여 “재물과 화폐가 물 흐르듯 흐르게 해야 한다(재폐 욱기행여유수財幣欲其行如流水)” 고 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재화를 생산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업무역에 대해 아주 높은 식견과 상상을 보여준다. 그는 물자교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겨 돈을 벌고 재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구했다.

그는 물품은 교환을 통해 가치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상인은 교환과정에서 얻어야 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재화를 축적하고 돈을 버는 방법은 대단히 실질적이다.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경제철학과 학문이 담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부를 축적하는 이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의 질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자금이 유통되지 않고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쉽게 부패하고 변질하는 물품은 제 때에 내다 팔아야지 더 나은 가격을 받겠다고 묵혀두는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계연의 경영 사상이 갖는 높은 수준은 상품의 가격에 따른 변

증법적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상



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철저히 간파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상품의 과잉공급이나 부족한 상황에 대해 연구하여 물

가가 오르고 내리는 기본적 규칙과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이동한다는 원리와 시장교환의 일반적 규칙에 근거하여 “비싼 것이 극에 이르면 싸지고, 싼 것이 극에 이르면 비싸진다” 는 과학적 결론을 얻어냈다. 그는 사람들과 상업 종사자들에게 시기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매매를 위해 머리를 싸야 할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거름을 비싸게 팔 수 있고, 진주를 싼 값에 살 수” 있다. 싸고 비싸고 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관건은 시기를 장악하는데 있다.

계연은 “남고 모자란 것을 알면 싸고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는 경영 전략을 제기한다. 이는 경영의 요점이자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지만 놓치기 일쑤다. 개인의 편견과 지나친 자신감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진 무려 2500년 전에 계연은 상품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거기에 맞추는 경영 전략을 제기했다.

경력

한국 고대사의 '한중관계사' 전공
중국 한성시 2007년 명예초민중과
사마천 사학상 등 수여

대표적인 저역서

〈첨자고(諫者考)〉, 〈간서(間書)〉,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2권,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사기를 읽다), 〈완역 사기〉(현재 3권
출간), 〈제국의 빛과 그늘〉외다수



김영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다우케미칼,
토이론과 저밀도 폴리우레탄보드
준불연 인증 획득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토이론 보드' 건물 화재 피해 막는다**

차세대 건물 단열재로 화재 피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안전성·단열성·경제성 세 마리 토끼 잡아

한국다우케미칼은 국내 건축 및 보온 단열재 전문 제조기업 (주)토이론과 공동개발한 폴리우레탄보드 시스템이 준불연재료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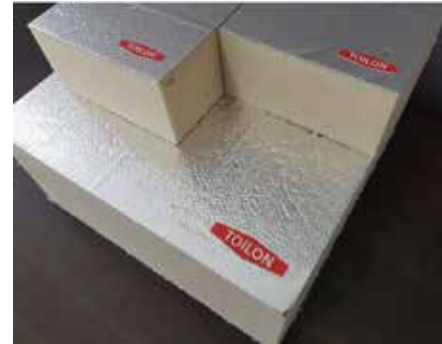
토이론은 자사의 준불연 단열재를 적극 홍보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토이론 보드' 로, 지난 4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부터 KS M 3809 2종 2호 준불연 인증을 획득했다. 가스 유해성 테스트 결과, 업계 평균인 9분을 크게 웃도는 14분이라는 수치로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제품 무게와 연관된 심재 밀도 또한 업계 평균보다 낮은 36.8kg/m³에 불과해 가벼우면서도 경제적인 제품이라는 평가다.

불연성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준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난연재료로 나뉜다.

이 중 일반 건축물의 단열재로 흔히 쓰이는 재료는 스티로폼 소재로,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성이 강하지만 불에 취약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폴리우레탄의 경우 스티로폼



보다 단열성이 뛰어나지만 유기소재이기 때문에 불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다우케미칼과 토이론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폴리우레탄 단열재료는 이례적으로 준불연 재료 인증을 받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건물 화재 사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단열재의 재질이 꼽힌다. 최근 국내에서 대형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건물용 단열재의 불연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고층건물에만 적용되던 단열법령이 5층 이하의 저층 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경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단열재에 대한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준불연 인증을 받은 토이론 보드는 단열재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산업 전기 공사 전문
PT. YUCOM SANJEN



기술에 혼을 담다!

PT.YUCOM SANJEN은 16년의 인도네시아 산업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PLN 신설 및 증설
전기 / 계장 / 수,변전 설비
고, 저압 / 역률방지 / PLC / CONTROL PANEL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0 222 / 5982 666 Fax : 5984 666
김종환 : 0815 930 1026 E-mail : hatibuka95@gmail.com

인도네시아까지 밀어닥친 신흥국 금융 불안... 정책 당국 예의 주시



▲ 미국 금리 인상(發) 신흥국 금융 불안이 인도네시아로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화 가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시작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아르헨티나, 터키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상륙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과 이에 따른 금융 불안이 한국과 인접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가시화되면서 경제 정책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일찌감치 미 통화 긴축 시 위기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요주의 국가로 꼽혔다. 이들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대외건전성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무역, 투자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터키보다 한국 경제와 관계가 긴밀하다. 우리 정책 당국이 인도네시아 금융 불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다.

한 경제 당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역내 위기가 확산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만 이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 확실히 차별화된 상황”이라며 “만일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17일 기준금리(7일물 역리포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나타난 루피화 가치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전이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금융 연구소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경우 자금 유출은 질서 있게 이뤄지지 않고 금융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지역이라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국내 금융사의 달러 자금 조달 환경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금융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여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7위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170억달러로, 수출이 약 80억달러, 수입이 약 9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건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현관도어 'ADS 70 AP' 출시 보안성은 기본, 감각적 디자인 갖춘 프리미엄 도어

(주)이건창호가 품격이 다른 알루미늄 시스템 현관도어 'ADS 70 AP(Aluminum Door System 70 AP)'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건창호의 30여 년의 노하우를 담은 제품으로 단독주택 및 갤러리,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출입문을 넘어 공간의 첫 인상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도어이다.

ADS 70 AP는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의 프레임에 알루미늄 판넬과 디자인 3중유리를 탑재해 도어의 기본 기능인 보안성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스타일을 겸비했다. 또한 알루미늄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해 우수한 단열성과 기밀성을 모두 갖추었다.

신제품의 유리는 실외와 실내면이 다른 특수 유리가 사용됐다.

실외면은 투과율 0%의 골드사틴 유리로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뛰어난 보안성을 갖췄으며, 실내면은 반사 유리가 사용돼 현관 앞 공간을 확장해 보이게 하고 외출 시 전신거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도어 클로저(열린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



▲ 이견창호 시스템 현관도어 'ADS 70 AP' 메탈릭 골드 실버.

치)는 매립형 방식을 사용해 돌출형 도어 클로저에 비해 디자인이 깔끔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정지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닫힌다.

또한, 실내 핸들은 독일 슈코사의 프리미엄 핸들을 채택해 자동 잠금 기능이 있고, 여성, 노약자, 아이들의 작은 힘에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인식, 번호, RFID 카드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도어락 적용으로 보안성도 한층 높였다.

취향에 따라 ▷메탈릭 차콜 ▷메탈릭 골드 실버 ▷메트로 브론즈 ▷리갈 블루 등 도시적인 4가지 색상의 판넬과 ▷골드 사틴 ▷브론즈 반사 ▷브론즈 미스트 등 3가지 종류의 유리를 조합할 수 있다. 또, 개폐 방식 역시 외단이와 양여단이 스타일 중 선택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공지사항

5.23일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적하 목록모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업무 방식에서 몇 가지 변경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상 선적건부터 5.23일 적용 예정입니다.

1. MBL&HBL: 인도네시아 수입자 TAX NO(NPWP)입력
2. MBL&HBL: DESCRIPTION란 각 품목별 HS CODE 필수기재 (4자리까지만)
3. DESCRIPTION 란 품명기재시

상세 품명 기재(기존과 동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수입자측에 TEX NO 확인하여 선적서류 작성할 수 있도록 SHPR측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기존 1MBL&1HBL 발행의 FCL 건의 경우 일부 선사의 경우 도착지 적하목록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착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수출입자간의 서류를 완벽히 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 특징 : 1)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기업 약 1,000여 업체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7,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3) 설득력이 높으므로 상품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압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 x 25mm)
3. 35mm Spandek (920 x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x 110)
5. Genteng Metal (기와) (82 x 35) (225 x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만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남는 장사’ 된 해외건설 대형사 원가관리 통했다

만성 적자 시달리던 해외사업
올들어 원가율 대폭 개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던
대형건설사들의 해외사업이 수
익사업으로 돌아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사업은
대부분 100% 이상의 원가율을
나타냈지만, 원가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서는 100%
밑으로 뚝 떨어졌다. 원가율이
100%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것
은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사업수
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
다는 뜻이다. 대형사들은 올해
를 기점으로 해외사업이 수익사
업 기반을 굳힐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2일 해외건설업계와 한국투자
증권 등에 따르면 100%를 웃
돌았던 대형건설사들의 해외사
업 원가율이 올해 들어 일제히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1분기에 창사 후 최대 실
적을 달성한 GS건설은 해외사
업 부문의 덕을 토포했다. 작
년 평균 111.5%였던 GS건설의
해외사업 원가율은 이번 1분기
에 82.3%로 떨어졌다.

조운호 DB금융투자 연구위원
은 “일회성 요인(해외현장에서
약 1200억원 수령)으로 원가율
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를 제외

해도 1분기 원가율은 91% 수
준”이라며 “저가수주 현장
의 정리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
어 앞으로 해외사업 원가율이
100% 미만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도 해
외사업 원가율을 100% 미만으
로 낮췄다.

작년 평균 101.7%였던 현대건
설의 해외사업 원가율은 올 1분
기에 96.0%로 떨어졌다. 감소폭
이 5.7%포인트로, 해외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은 “1분기 총 영업이익은 컨센
서스(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
만, 해외사업 이익률은 기대치
를 넘어섰다”며 “이는 꾸준한
원가 관리가 낳은 결과로, 앞으
로는 해외사업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해외수주 1위 삼성엔지
니어링도 해외사업 원가율 개선
을 이뤄냈다. 해외 비중이 절대
적인 화공플랜트의 원가율이 작
년에는 평균 112.3%, 지난해 4
분기에는 147.2%에 달했지만
올 1분기 들어 99.5%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서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의
화공플랜트 원가율을
96.2%로 전망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가수주 부작용 확산
여파 등으로 건설사들이
해외사업 원가관리를 강
화하는 추세”라며 “이
런 노력으로 해외사업에
서 얻는 수익이 차츰 증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재훈의 세무상식

자본금과 세무이슈

외투법인(FMA)의 경우 주식회사(PT)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네 인도네
시아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로 총
발행할 주식을 설립 정관에 기재
하게 된다.

수권자본(Modal Dasar)제도로
주식회사에서 있어서 회사 설립
시 설립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수권주식총수)를 기재하
고 이렇게 기재된 수권주식 총수
중 주주가 일부만 납입하여도 회
사가 설립되고 나머지 주식에 대
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증자
형태로 자본 조달하는 제도를 말
한다. 다시 말해 수권 자본은 회
사 설립시 총발행할 주식을 뜻하
며, 납입자본(Modal Setor)는 말그
대로 실제 납입한(회사에 입금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인니 주식회사법상 최초 납입
자본금(Modal Setor)은 수권자본
(Modal Dasar)의 25% 이상 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25%
이상으로 50% 든 100%든 관
계없다. 최소 25% 이상이면 가능
하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인도네시
아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예탁하
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지만
회계처리상은 납입을 하지 않더
라도 정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정관상 납
입자본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입을 하
지 않아도 법인이 설립되므로 한
국의 투자자가 이해하는 납입자
본금과 정관상 납입자본금의 차
이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것 같다.

사례 1) 한국에 모 기업은 상장
회사로 인니에 투자한 회사의 재
무제표를 연결하여 공시하는 기



김재훈 대표

업인데, 인니 회사의 정관상 수권자본
금은 20,000,000불이고 납입자본금은
15,000,000불로 설립되었다. 한국 모
기업에서 그 해 10,000,000불만 송금
하였다.

한국 모기업의 입장은 한국에서는 투
자유가증권으로 10,000,000불만 회계
처리 하였고 인니 투자회사도 자본금
이 10,000,000불이 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자본금으로 10,000,000불만
송금하였기 때문인데, 인니 법인은 정
관상에 20,000,000불이 납입된 것으
로 되어 있으므로 20,000,000불을 자
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입금되지
않은 10,000,000불은 주주대여금 등으
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한정 의견
을 줄 수 밖에 없고 세무상으로도 상
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세
무상 20,000,000불이 정관상 납입자
본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입한
10,000,000불만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면 10,000,000불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입장은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 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례 1과 같은 유사 사례는 많은 신설

회사들에 발생되고 있다.
사례2) 정관상 납입자본금이
1,000,000불인 기업이 있는데 당
해년도에 납입을 하지 못하고 수
년에 걸쳐서 납입을 하였는데 세
무당국은 별도 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로 과세한 사례인데 이익신
청에서 받아드려 해결은 되었지
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어감.

사례3) 납입자본금이 90만불인
기업이 있는데 주주는 ABC로 각
각 30만불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납
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B, C 주
주가 DE 로 변경되었고 이렇게
주주가 여러 차례 형식적으로 변
경되었는데 인니 세법상 비거주
자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해서
는 매매대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자본금
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렇지
만 자본금 납입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기 때문에 미납입
자본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문제
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요한
다. <끝>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조세변호사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BUSINESS DIVISION

ACE No. 1

토목 / 건축 / 공장 건설사업으로 성장한 **PT. ACE E&C**가
신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개념의 **HVAC** 및 **Solar Plant** 사업을 시작합니다.

HVAC Solutions

VRF



빌딩/학교/기숙사/APT

Turbo Chiller



공장/플랜트/발전소

※ HVAC :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Solar Plant Solutions



ReneSola



Inverter



ESS

※ PT. ACE E&C는 ReneSola의 인도네시아 Partner 회사임

GENERAL CONSTRUCTION CIVIL - ARCHITECTURE - ELECTRICAL - MECHANICAL - HVAC - NEW & RENEWABLE ENERGY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DASOM KONSTRUKSI & TEKNIK
자카르타 021 3004-8047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건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54 394-297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다 슈
자카르타 021 2940-3042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전기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PT. RIZKY KIM INDONESIA
건축 자재
땅그랑 021 5577-8383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a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K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HANSHIN
컴프레사
땅그랑 021 5949-4000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8327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판넬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뵙 0721 780 151, 0721 781 457

설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찐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자카르타 021 2902-2342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땅그랑 021558-6446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조명등, 조명기구

PT. ZORBA
조명등, LED LAMP
자카르타 0812 6019 4401

중장비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PT. GLOBAL CENTER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포워딩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 공항 픽업 서비스
- ☑ 리버보트
- ☑ 점심
-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소식에 '쌍용건설'의 기술력 이목집중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단독 시공, 한화 1조 규모 프로젝트



센토사 섬 W 호텔, 대안 장소로 거론되는 선택시티도 쌍용 시공 싱가포르 다수 호텔, 전 세계 1만 5천실 호텔 시공 고급건축 명가 입증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싱가포르에서 맹활약을 펼친 쌍용건설이 소리 없이 웃고 있다.

6월 12일 개최될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상그릴라 호텔과 함께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센토사 섬 세 곳이다.

이 중 두 곳에 쌍용건설이 시공한 호텔이 있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아직 미정인 개최 후보장소 언급과 분석 자체로도 쌍용건설 시공 실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PR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며 최대 52도 기울기와 스카이파크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국내건

설사 해외 단일건축 수주 금액 중 최대인 한화 1조원 규모로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했다. 57층 3개동 2,561 객실 규모다.

특히 수영장 3개와 전망대, 정원, 산책로, 레스토랑, 스파 (Spa) 등이 조성된 길이 343m, 폭 38m의 스카이파크 (SkyPark)는 에펠탑 (320m)보다 20m 이상 길고, 면적은 축구장 약 2배 크기 (12,408㎡)에 달하며 무게는 6만 톤이 넘는다.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망대는 보잉 747 여객기 전장과 맞먹는 약 70m가량이 지지대 없이 지상 200m에 돌출된 외팔 보(cantilever) 구조를 하고 있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센토사

섬은 리조트와 6개의 호텔이 들어선 휴양지로 쌍용건설은 이미 곳에 W 호텔을 2012년 준공했다.

해안선을 따라 지하 1층 지상 7층 총 240객실로 완성된 이 호텔은 규모는 작지만 외관, 로비, 엘리베이터, 객실과 부대시설에서 조명과 손잡이 하나까지 3,000여 개의 독특한 디자인 아이템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건물 외관도 파도가 치듯 건물 전체가 2개로 갈라지는 곡선 (□) 형상을 하고 있으며 500석 규모의 연회장, 요트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선택시티 복합건물(Suntec City Complex)도 쌍용건설이 1997년

시공했다.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복합건물인 선택시티는 99년 ASEM 회의 개최로 유명해져, 매년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아시아의 비즈니스 명소로 자리잡은 곳이다. 특히 쌍용건설이 국내 건설업체(현대건설)와 공동으로 수주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프로젝트이다.

쌍용건설은 이 밖에서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고층 호텔로 1986년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는 73층 높이의 스위스호텔 더 스탬포드와 페어폰트 호텔 (총 2,065객실)을 포함하는 래플즈 시티 복합건물을 시공했고, 100년이 넘는 호텔을 리모델링 한 래플즈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 수 많은 호텔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장소에서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처럼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후보로 쌍용의 작품이 여러 곳 거론되는 것은 쌍용건설이 그 만큼 호텔 등 고급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를 비롯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 등에 1만 5천 객실의 호텔 시공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ELIT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공지사항

월간 건설신문 창조는 재인도네시아 건설관련 기업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건설관련 한인업체의 디렉토리를 창조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업체는 아래 관련 정보를 주시면 매월 업데이트 시켜 상호 정보공유와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아래 기초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성명 : 한글, 영문 3) 개인 핸드폰번호 4) 회사 전화번호 5) 회사주소 6)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7) 홈페이지 주소
- 위 정보를 보내 주시면 매월 발행되는 건설신문을 무상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 저희 지면에 무상 게재되는 디렉토리는 지면 관계상 회사명, 전화번호(1개), 주요업종, 지역, 이메일 만 게재해 드립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를 게재하시길 원하시면 직접 상담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주소 : khong3000@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0858 9060 0962

가설 자재의 모든것!

PT. RIZKY KIM INDONESIA는 한국가설협회의 **안전 인증서**와 **부재별 시험성적서**를 모두 갖춘 Hory korea의 우수한 품질의 System Support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PT. RIZKY KIM INDONESIA

- 시스템 써포트 (SYSTEM SUPPORT)
- 비계파이프 (BIGYEI PIPE)
- Steel Frames Scaffolding



중고 가설 자재 매입

시스템 써포트
비계파이프
유로폼
Steel Frames Scaffolding



Office : Jln. Imam Bonjol Ruko Pinangsia Blok I No. 1/2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77 8383 HP : 0813 1900 2020(김성하) 0812 8005 0077(김명하)
E-mail : sungha1891@hanmail.net